

보림꽃예술중앙회 '육법공양' 시연회

꽃꽃이협회 14일 월례회서

불교계의 대표적인 꽃예술 단체 중 한 곳인 보림꽃예술중앙회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내 최대 꽃꽃이단체인 한국꽃꽃이협회 회원들에게 육법공양을 시연했다.

서울 월계동 기원사 보림꽃예술중앙회(회장 지연, 이하 보림회)는 3월 14일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에서 열린 한국꽃꽃이협회 3월 월례회에서 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의 하나인 육법공양(六法供養)을 시연했다.

회장 지연 스님을 비롯한 18명의 보림회 회원들은 향(香)·등(燈, 연등)·차(茶)·화(花, 꽃)·과(果, 과일)·미(米,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각 2개)을 꽃꽃이로 장엄, 150여 명의 한국꽃꽃이협회 회원들에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꽃꽃이협회는 불교·개신교·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인과 무종교인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내 최대 규모의 꽃꽃이 단체다. 한국꽃꽃이협회 소속인 보림회가 협회 행사에서 꽃꽃이를 통한 불교의식을 시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성민 기자



보림꽃예술중앙회가 3월 14일 한국꽃꽃이협회 월례회에서 육법 공양을 시연하고 있다.

프랑스인이 그려낸 극락 환희의 장엄

오는 4월 3일까지 불일미술관서

프랑스 추상화가 다비드 예가네는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종로구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극락색색(極樂色色)'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대해 불일미술관은 "형형색색의 화려한 빛깔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불교 또한 그에게 생기발랄하고 환희에 찬 극락세계의 장엄과 유사하다"면서 "다비드 작가의 작품은 찬란한 원색으로 빛나는 고려불화의 이상향과 당당함이 작가가 꿈꾸는 극락이고 정토"라고 설명했다. (02)733-5332 신성민 기자



다비드 예가네의 작품 'Nostalgie'

불교와 현대미술, 파격의 경계서 만나다

BAF, '현대불교미술특별전- 모던 붓다展'

포스트모더니즘을 근간한 현대 미술은 재현이 아니라 틀에 묶여 있지 않다. 해체하고 재구성해 낸다. 절대화를 거부하고 열려 있는 다원성에 주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는 일련 불교와는 맞닿아 있다.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3월 24일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개막하는 '제4회 붓다아트페스티벌(Buddha Art Festival, 이하 BAF)'에서 현대미술과 불교의 조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엔 눈길을 끄는 것은 현대불교미술특별전인 'Modern Buddha展'이다. 올해에는 현대미술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백승호, 이완, 최두수 작가가 참여한다.

백승호 작가는 우리의 전통건축을 선으로만 구성해 입체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작업으로 유명하다. 이번 작업을 통해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작품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2002년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했고 6회의 개인전과 19회의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이완 작가는 현대미술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2004년 동국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7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2014년 삼성미술관 리움에 선정한 제1회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을 수상했다.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전의 참여작가이기도 하다.

최두수 작가는 잡지나 미디어, 일상의 사물들로 자기만의 독특한 필라주와 미디어 작업을 해 온 작가다. 콘크리트를 이용한 작업과 잡지라는 대중 매체를 잘라 붙여 예술 매체로 완성한 '산 자르기'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시립대 예술대를 졸업하고 첼시 칼리지 예술대학에서 석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8회의 개인전과 3번의 2인전,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해 그만의 독특한 세계를 펼쳐왔다.

이번 BAF에서 소개되는 작가 3인의 작품들은 모두 불교, 혹은 불교의 요소들을 소재로 삼고 있

다. 이들은 각자의 작업을 통해 '현대미술의 종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러다보니 파격의 경계에 있는 작품도 다수다.

대표적인 것이 이완 작가의 작품이다. 'Product(2015)'는 황학동 기념품 매대에 가격표가 붙여 있는 불상과 다양한 상품들이 놓여 있다. 어떤 이에게는 신앙의 성물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상품이 되는 현대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질이 과잉 공급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작가는 우리에게 던진다.

불교는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고 모든 존재를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다. 불교의 이

백승호·최두수·이완 작가 참여

불교 소재로 미술 영역 확장해

가격표 붙은 황학동 시장 불상

'자본주의 內 종교' 질문 던져

청년불자 작가위한 전시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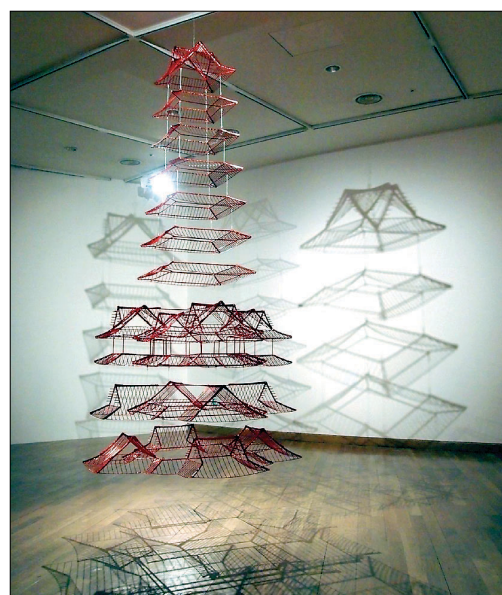
미지는 2,500여 년의 역사를 흘러오며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생성된 일종의 상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 작가의 작품 역시 성과 속의 경계를 넘어 현대미술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해다 BAF 디렉터는 "이번 특별전이 그동안 이어져 온 불교미술의 경계를 허물고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서 새로운 불교미술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의 접점을 넓혀갈 다양한 기획들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BAF에는 '청년불교미술작가전' 등 다양한 전시들이 진행된다. 규모도 크다. 100여 명의 작가들이 67개 부스에서 작품을 선보일 예



이완 작가의 사진 작품 'Product(2015)'. 황학동 시장 기념품 매대에 불상과 다양한 상품들이 가격표가 붙여 있는 상태로 진열돼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백승호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철재를 이용한 라인으로 만든 한옥의 처마와 기와의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제작해 공간에 대한 여러 시선을 작품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정이다. 올해에는 불화, 불상 등의 조형불사와 전통기법부터 현대기법까지 다양한 미술의 세계의 살펴볼 수 있는 현대불교미술, 서예, 전통공예, 불교사진 등이 전시된다.

작가군도 다양하다. 지난해에 이어 서철교, 이재윤, 황규철, 김지원 등 BAF가 발굴하고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작가들이 참가하며, 하얀 종이로 보살상을 만드는 박명옥 작가, 단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구현하고 있는 박일선 작가, 전통 금속공예의 발전과 계승을 이어가는 금속조각장 광홍찬 장인 등이 새롭게 BAF 무대에 선을 보인다.

한편,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3월 24~2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마음이 쉬는 공간'을 주제로 열리며 한국불교의 불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각종 산업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직지 환수' 애절한 염원 노래로 담아내다

가수 이진옥, '천년의 혼 직지여' 앨범 발매

전통가요 특유 구슬픈 멜로디

호소력 짙은 가사·보컬 '눈길'

"서원 땅에 이른 바람이 흥덕사에 머무르니 불조직지심체요절 꿈속에서 깨어났네<중략> 돌아오라 서원 땅으로 천년의 혼 영원하리라."

가요 <천년의 혼 직지여> 中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조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의 환수를 염원하는 전통가요가 발표됐다.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진옥 씨(60·사진)는 3월 초 '천년의 혼 직지여'를 타이틀곡으로 한 싱글앨범을 발매했다. 작곡은 향토 작곡가 문장대 씨(63)가 참여했다.

'천년의 혼 직지여'는 전통가요 장르의 노래이다. 차분하고 애절한 멜로디가 <직지> 환수를 담은 가사와 이진옥 씨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만나면서 깊이를 더한다.

이 씨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직지>가 가진 위대함과 환수의 염원을 담아 최대한 애절하게 가사를 썼다"고 말했다.



천년의 혼 직지여

LEE JIN OK 이진옥

작곡자인 문 씨도 "<직지>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작곡은 4년 전에 이뤄졌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기됐다. 기다린

만큼 곡이 잘 나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씨는 별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청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향토 작곡자인만큼 불교 등 문화유산, 민속 풍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진천 농다리 등을 소재한 곡을 쓰기도 했다.

가수 이 씨는 강원도 영월 도불암 신도로 산행 활동을 하는 불자이다. 이 씨는 "가수로 데뷔하고도 틈나는 대로 도불암에 가서 산행활동을 한다"며 "<직지> 노래도 수행과 산행을 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문 씨와 함께 4월부터 '천년의 혼 직지여' 홍보에 들어간다. 공중과 TV프로그램을 비롯해 동료가수들과 지역에서의 깜짝 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이 씨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직지>가 지역만 리 타향에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현재 <직지>를 소장 중인 프랑스 국립도서관 앞에서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집입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염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www.buddhabook.co.kr

불교서적
신행용품
명상음반

붓다북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구입처 붓다북 02) 953-7181

